

손보경 “나와 내 주변인들 이야기 쓰고파” 문채영 “깊은 서사 담긴 재밌는 작품 목표” 강일규 “삶의 무게 시로 받아들이며 정진”

2022 전남매일 신춘문에 골드문학상 시상식

역량 있는 문학 신인을 발굴하는 2022 전남매일 신춘문에 ‘골드문학상’ 시상식이 12일 본사 6층 사강실에서 열렸다. 세종, 수원, 대구 등 시상식을 위해 아침부터 먼 곳에서 달려왔다는 당선자들의 눈에는 피곤함보다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소설 부문 당선자 손보경씨(36·필명 임춘보)는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기 전 그 사이가 가장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나름의 돌파구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

런 과정 속에서 글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신춘문예에 한 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원고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손보경씨는 “당분간은 닥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며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내 주변인들의 이야기다. 이번 신춘문에 당선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동화 부문 당선자 문채영씨(22)는 “학생 때부터 원래 책과 글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글을 써 왔었다”며 “언젠간 막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만 하던 일인 등단을 이룬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문씨는 “물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고 깊은 서사와 의미를 담은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히는 글을 쓰고 싶다”며 “아직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취직 등 현실적인 사회생활 등을 헤쳐나가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



손보경 문채영 강일규

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시 부문 당선자 강일규씨(64)는 “오랜 공직 생활을 끝으로 약 10여 년 전 퇴직 후 방송통신대학교 문예반에 들어간 것이 내 오랜 글쓰기의 시작이었다”며 “무엇보다 나의 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두운 곳에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며 “나이가 있다 보니 아프기 전까지 생의 남은 기간 동안 삶의 무게를 시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시를 쓰며 시와 함께 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2전남매일 신춘문에 ‘골드문학상’은 시·단편소설·동화3개 부문에서 작품이 응모됐으며 지난해 말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본심이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강대선 시인, 심승경 소설가, 임정자 동화작가가 참여했다. 소설은 손대경씨의 ‘씩’, 동화는 문채영씨의 ‘새벽 놀이터’,

시는 강일규씨의 ‘미역국’이 각각 당선됐다.

소설 ‘씩’은 전형적으로 끈대라 불릴만한 주인공의 내면과 외면을 균형적으로 묘사하며 그 비루한 괴리 사이에서 인물의 입체성을 확보하고 페이스를 자아내는 능숙한 솜씨로 읽는 내내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대 서사나 기발한 설정에 기대지 않고도 삶 속의 흔한 장면들 속에서 얼마든지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의 발굴과 전개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유다.

동화 ‘새벽 놀이터’는 디테일 면에서 서투름은 있으나 자신만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품 쓰기를 시도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인적이 끊어진 어두운 놀이터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두려움과 불안, 그 속에 묻어 있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평가다.
시 ‘미역국’은 아기를 잃은 ‘나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지점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연민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울림이 컸다는 평을 받았다. /오지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평생도. 왼쪽부터 1쪽 원본과 디지털 복원본, 2쪽 원본과 디지털 복원본.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성공한 조선 사대부 일생...회화 ‘평생도’ 디지털 복원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

조선시대 회화 중에 ‘평생도’라는 작품이 있다. 종이 8-12장에 돌잔치, 혼례식, 과거 급제, 정승 취임, 회혼례(결혼 60주년 기념식) 등 삶의 경사스러운 순간을 담았다. 평생도 속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공한 사대부의 일생을 그린 그림을 보며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생활이 순탄하기를 기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생도 8폭 병풍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콘텐츠 ‘조선 사람들의 꿈, 평생도’를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에서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물관 소장품인 평생도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곳곳이 훼손됐다. 박물관은 회화를 물리적으로 보존처리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로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복원했다. 변색하고 오염된 부분은 본래 색상으로 되돌렸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복원 전후 그림을 비교해 살피고, 특정 부분을 확대해 감상할 수 있다. /연합뉴스

뮤지컬 ‘광주’ 광주시민 역 배우 모집

광주 주소지 둔 성인...접수 16일까지
합격자 오는 4월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

잊어서는 안될 5·18민주화운동은 담은 뮤지컬 ‘광주’가 새롭게 참여할 배우를 모집한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광주’는 올해 세번째 시즌 공연을 앞두고 광주 배우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춤과 노래, 연기 등이 가능하며 광주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해당 공연의 연습 및 출연이 가능해야 한다. 타 공연 연습이나 공연의 동

시 진행은 불가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배우들은 ‘광주 시민’ 역할을 맡게 되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정동 경향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오디션 합격자에 한해 서울 연습 숙식과 연습비, 공연 출연료를 포함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디션 참가를 원하는 배우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16일까지 지원서, 각각 3분 내외의 노래

영상과 연기 영상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지난 2020년 서울 대학로홍익아트센터에서 초연한 이후 고양, 부산, 전주, 광주 등 총 54회 공연을 통해 총 1만 3,0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됐다. 그 해 제5회 한국뮤지컬 어워드에서 대상, 앙상블상, 안무상, 극복상, 음악상(작곡)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국민뮤지컬’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금호주니어콘서트 비대면 오디션

내달 7일부터 5일간 접수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2월 7일부터 5일간 ‘제13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지역사회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무대 경험을 쌓게 하기 위

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월 말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개최해왔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 오디션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022년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도 비대면 영상 오디션으로 열린다.

오디션 문의는 전화(062-360-8432)로 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오디션은 만 26세 이하의 피아노, 현악, 기악, 성악 부분의 음악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연주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USB 우편 제출 또는 해당 영상의 링크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디션에 합격한 학생들은 오는 7-8월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오디션 문의는 전화(062-360-8432)로 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밀”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폼핑회 1등

흔트러져 있는 실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차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차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